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지난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대천사(주지 세진스님)가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대천사는 지난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성금 200만원과 김장김치 후원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 오시는 날을 맞아 성금을 정관읍에 전달하면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대천사 주지 세진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사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 100만원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정관읍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